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화엄경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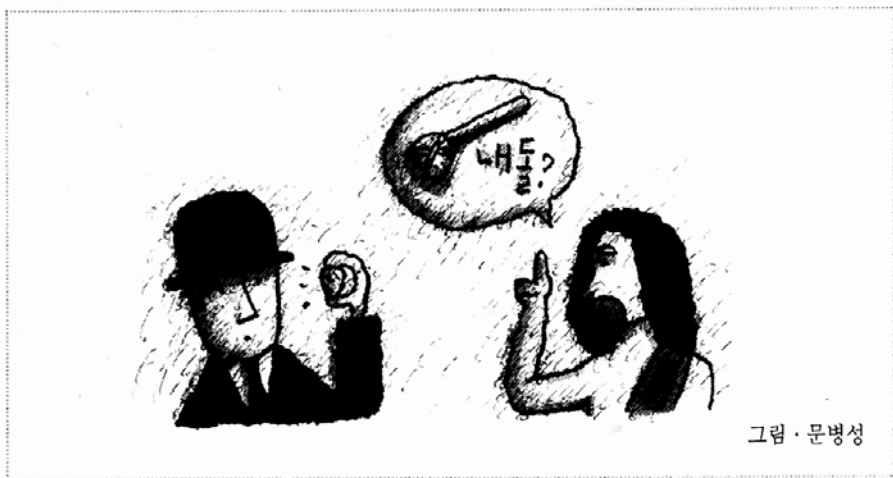
십지법문이 차례대로 이어져서, 제8은 부동지(不動地)이다. 여기서는 무분별 지혜가 자연히 상속하여 형상과 작용, 번뇌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심신 자체(十身自在)·심신상작(十身相作)에 관한 내용이 펼쳐진다. 마치 달이 일천 강에 비치지만 달은 허공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화엄에서 일곱 장소에서 법회를 아홉 번이나 여시지만 부처님의 몸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보살이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고는, 중생인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 중생들의 좋아함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이 몸으로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느니라...能以

응신(應身)으로 중생에게 다가간다. 그래서 조선포에 조성된 관음상은 모두 사유하는 자체인 윤희좌(遊戲坐)나 교족좌(交足坐)의 형태가 많은가 보다. 저 제도하기 어려운 역센 중생(難化眾生)들을 잘 제도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그래서 조선시대의 불교는 신라·고려 때보다 더욱 민중 신앙 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 제9는 선혜지(善慧地)이니 미묘한 4가지 결집 없는 지혜(四無 智 辯)를 성취하여, 능히 시방에 두루 해서 법을 잘 말하기 때문이다. 선혜지는 설법자재(說法自在)를 이룩한 대법사위(大法師位)에 해당한다. 계승을 보자.

이 지(地)에 머물러서 잘 관찰하고 그 마음과 근성과 이해를 따라 / 모두 다 결집 없이 묘한 변재로 적당하게 분별하여 연설하는데, 법상에 앉은 모습



그림·문병성

## 만물 모습 달라도 근본 하나

### 불교와 과학 <43>

지구가 태어난 이후 마그마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화강암 바위 하나가 생겼다. 그 바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었다. 어느 거인이 그 바위를 빼앗았다면, 바위가 놓인 산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바위였다. 그 바위는 흙을 만들었고 그 흙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 나무의 일대들은 바람 소리를 만들어 냈다. 바람과 함께 온 빛방울은 나무의 열매를 낳았고, 그 열매의 작은 씨앗 하나가 바위 틈에 내려앉아 세월과 함께 바위 속을 후비며 또 한 나무를 키웠다. 그 나무는 커가고 그 나무뿌리는 드디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르고 쪼개어 작은 바위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바위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부족 사람들은 그 바위 한 귀퉁이에 동굴을 내어 살면서 바위 표면에 그 사람들의 사냥감과 부족의 구슬을 그들의 상징언어로 새겨놓아, 기억의 하드디스크로 만들었다.

그리고 쪼개진 더 작은 돌로는 돌도끼를 만들어, 스스로 도구사용의 인간(Homo Faber)임을 뽐냈다. 그 마을 족장이 죽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죽은 이를 돌기둥 사이에 흙으로 파묻고 그 흙더미 위에 큰 바위를 옮겨 놓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 돌을 고인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몇 천년이 지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들간의 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고인돌을, 사람들이 자랑하던 본질심이라고 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적당한 기하학적 모델에 맞춰 돌을 재단해 벽돌을 만들어 성곽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항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곽 돌을 부순 작은 돌로써 투석전을 끝으로,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곽의 붕괴와 함께 역사 건너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돌이 있었다. 그 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이는 그 돌을 모아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논두렁을 쌓기도 했다. 최근에는

어느 현대 조각가가 그 돌을 가지고 예술 조각품을 만들었다. 또 어떤 화장품 재료업자는 그 돌을 잘게 부수고 정제하여 화장품 재료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이는 화장암 침대를 만들어 건강산업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돌침대 열기가 식으면서 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다.

바위는 몇 억 년을 거쳐도 같은 바위이지만, 윤회의 연극 무대 위에 나타난 그 바위는 결코 하나라도 같은 바위는 아니었다. 고인들의 돌과 성곽 벽돌의 돌은 같은 돌이기는 하지만, 성곽의 돌은 고인들의 돌이었던 지나간 과거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지 세월이 흘러 윤회를 거처면서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윤회를 통해 항상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보카 스님이 쓰신 <불교 이야기>에 나오는 미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대화를 들어 보자.

#### 바위 이야기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 벽돌-조각-화장품이 돼도 돌의 본래 성품 변함 없어

“존자시여, 사람이 죽을 때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의 주체도 다른 세상으로 옮겨갈까? 존자는 등불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런 사람이 한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을 옮겨 붙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한 등불이 다른 등불로 옮겨 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린다 왕은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도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갈지 없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왕께서는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운 시를 기억하십니까?” 이에 미린다 왕은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시는 스승으로부터 왕에게로 옮겨간 것입니까?” “아닙니다”라고 왕은 답했다. “왕이시여, 마찬가지로 몸은 옮김이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미린다왕문경)

산 위의 바위 덩어리나, 그 옆의 상수리나무 한 그루와 다름없고, 그 위에 하늘을 노니는 구름 한 조각이나, 애육에 갇힌 중생을 모두는 하나의 큰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서로 웃을 바위끼리서 입고 새로이 태어나지만 자신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인연으로 인한 윤회의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 하나의 큰 세상에서는 영원한 ‘같은’ 만이 있을 뿐이다.

■최희정/상지대 교수 jchoi@chak.sangji.ac.kr

## 허공 달 하나 千江 비친다

### 뛰어난 수행 뒷받침되어야 훌륭한 법문

衆生身 作自身 亦作國土身 業報身 乃至虛空身... “비유하면 허공에 뜬 해나 달이나 여러 곳 들 가운데 영상 비추듯 법계에 있는 보살 변동 없지만 마음 따라 나뉘는 영상도 그래(譬如日月住虛空 一切水中皆現影 住於法界無所動 隨心現影亦復然) / 좋아함이 각각 다른 마음을 따라 여러 중생 가운데 몸을 나뉘되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들이나 부처님 몸까지도 모두 나타내(隨其心樂各不同 一切家中皆現身 聲聞獨覺與菩薩 及以佛身亦不現).”

사자도 같고 우왕(牛王)이나 보배 산의 왕도 같으며(處於法座 如獅子 亦如牛王寶山王)

웅왕이 빈틈없는 구름을 퍼고 큰 비 내려 바다에 가득하듯이, 법의 성품 깊은 이치 모두 잘 알고 여러 가지 말을 따라 연설하오며(又如龍王布雲雲 覆甘露 雨充大海 善知法性及義 隨順 辭辭能辨說) / 백만 갑절 이승지 다라니 문은 큰 바다가 많은 비를 받아들이듯, 다라니와 삼매가 모두 청정해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더라.”

이처럼 큰 법사가 되어 다른 이를 위해 설법으로 보시하는 것을 심지수행의 후배에 배대한 것에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남을 가르치는 일이란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뛰어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지위나 보수를 먼저 생각하는 세태로 인한 ‘수행자나 교직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덕성이나 진리·학문의 실천에 충실하는 자락(自樂)의 도(道)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리라.

관세음보살은 이처럼 32가지

■불교사상사 능엄학원 연구원

## 믿음 강할수록 투병에 긍정효과

### 지구촌 불교 / 美 '노인과 종교' 보고서

종교가 인간의 심신에 평안을 준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종교가, 특히 종교의 도그마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종교적 신념은 어떻게 작용할까?

미국 보울링 그린 대학(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인 파커먼트(K.L.Pargament) 교수의 연구팀은 미 <내과학회지(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8월호에 게재한 '노인 환자의 종교적 갈등이 생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감 등으로 자신의 종교에 회의적일 때, 오히려 종교가 죽음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논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병 중 '신(神)이 나를 버렸지도 모르겠다' '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 '악마가 나의 병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신의 종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파커먼트 연구팀이 지난 96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596명을 선정해 믿음의 정도를 설문으로 파악한 후 2년 동안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적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 중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던 23%의 환자를 대부분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거나, 죽음을 맞았다. 반면 설문 조사에서 '투병의 고통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응답한 16%의 환자들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 50세 이상 환자 596명 조사 종교와 장수 연관성 밝혀 일부선 신빙성 의문 지적

연구팀은 이를 두고 "종교가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번 연구는 종교와 장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즉, 자신의 종교에 대한 견실한 믿음은 투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파커먼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투병 중 자신의 종교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죄의식, 불안감 등을 극복하지 못한 환자들, 그 결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피츠버그 주립대(Pittsburg State University) 라빈(B. Lavine) 교수는 "종교에 대한 믿음과 죽음의 관련성을 추적한 이 연구는 신체와 정신간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연구팀의 논문을 다룬 8월 13일자 기사에서 "연구 대상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휴먼이나 연령 등 죽음의 원인이 다른 요인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연구팀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연구팀이 2년 뒤에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152명을 이번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의학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오종욱 기자 gcbaoou@buddhapia.com

## 성을 통한 깨달음!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教)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 신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쇼

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르가즘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사, 의학 박사 디안 요기, 외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코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보여지기도, 그리고 느껴지기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kr/ 전화 주문 02)711-4227, 8 / 팩스 02)711-4229

##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알아 버리는 비법) 값 삼십오만원  
 「육임세밀정법」 (문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산소탈·발미·부정병 판단 비법과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비법) 값 일십오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시간에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회원·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시면 더욱 밝은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게 될것입니다.

고 북 자 효 사 배상  
 철 학 박 사

장소 및 시간 식대 및 음료비 10,000원

- 서울 관동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작곡 일진동) TEL: 02-960-0800
- 부산 동진교(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부산 동진교(부산시청역일진동)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TEL: 011-589-5465
- 대구 보리암 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일심동구 새천안역, 뒷편 2층) TEL: 053-653-0287
- 광주 광주시 동구 덕1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TEL: 063-284-7714
- 전주 원각정사(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위 제세현의회 2층) TEL: 051-242-6813
- 수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이원 철학원 (기독교대학교 맞은편) TEL: 031-242-2587
- 청주 동인원 한의원(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양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043-221-2587
- 원주 노점교회(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흥안동 불리(경찰서 앞)전 한막방 2층 TEL: 017-377-7005
- 인천 인천시 계양구 범종동 92-4 동호교회 컨설팅(매주 화요일 오전9시~12시까지) 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백인천역에서 2번출구에서 전차오류 TEL: 042-554-3780
- 충주 충주시 가림동 상동리 김광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관대대 큰리에서 1500미터 차-1서 김광사 이정표가 있음) TEL: 043-642-3352
-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범동 40-8 대영빌딩 3층 양부민선사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김천 대영교 동행주소 있음) TEL: 042-984-1700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02-993-8680  
 도서출판 북문